

## 운동주의 독서 체험 연구(3)

-전환기 정신사의 전유를 중심으로\*

박성준 \*\*

### -차 례-

1. 서론
2. 지성사의 탐독; 연전 시절 시적 전망의 모색
3. 전환기 전유와 근대 초극의 양상; 「慰勞」와 「肝」의 경우
4. 결론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1S1A5A8060923)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문초록]

윤동주는 1936년 10월 1일부터 1940년 12월 26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학예면을 중심으로 ‘스크랩북’을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독서목록을 항목화한 바 있다. 이 학예 스크랩북은 전환기 비평사의 거의 전 범위를 항목화한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윤동주가 당대 조선 문단의 전환기 비평사를 탐독했던 맥락과 그에 따르는 시의 영향 관계에 관한 고찰이다.

윤동주는 윤규섭, 안함광, 최재서, 백철, 김오성, 박영희 등의 전환기 담론을 읽고 자신의 시의 사상적 자양으로 삼았다. 특히 「知性 問題와 휴머니즘」, 「‘知性的 自律性’의 問題」, 「事實의 世紀와 知識人」, 「時代的 偶然的 受理」,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데듀-스의 事態」, 「古典 復興의 理論과 實際」 연작 등을 검토해보면, 윤동주가 이 시기 전후로 창작한 시에서 전환기를 어떻게 내재화했는지 해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윤동주의 시편 「아우의 印象畵」, 「사랑의 殿堂」, 「슬픈 族屬」, 「慰勞」, 「肝」 등에서 나타난 전환기 담론의 전유 관계는 검토해보면, 윤동주의 시에 투사된 전환기 정신사의 맥락들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윤동주가 자신의 시에서 전망하려고 했던 근대 초극의 양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

**주제어:** 윤동주, 스크랩북, 소장서, 독서 체험, 전환기 담론, 신희머니즘, 지성 옹호

## 1. 서론

운동주는 1936년 10월 1일부터 1940년 12월 26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학예면을 중심으로 ‘스크랩북’을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독서 목록을 항목화한 바 있다. 이 ‘학예 스크랩북’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피검 당시 하숙집에 남겨진 소장서, 자필 시고집 3권과 함께 유품으로 남아있던 것이고, 2권, 3권, 4권은 심호수<sup>1)</sup>가 보관해온 자료로 2000년 8월에야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1권은 운동주가 유학 중에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시, 한시, 동요, 평론, 수필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운동주의 독서 편력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료<sup>2)</sup>라 할 수 있다. 2권과 3권은 문학 평론만으로 구성하여 운동주는 당대의 조선 문단의 담론과 징후를 살피었으며, 4권은 평론뿐만 아니라 좌담회, 서간문, 소설까지 포함하여 당대 지성사와 함께 조선 논단의 흐름까지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선행연구사에서 상대적으로 운동주가 “남긴 장서들에 관해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여느 시인들의 독서 체험이 그들의 연구사에서 보충적으로 다뤄지듯, 운동주 또한 그런 관행이 작용”<sup>3)</sup>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 문단과 일정 거리 떨어진 자리에서 자기 시를

- 1) 심호수는 심연수의 동생으로, 운동주의 여동생 부부(오형범, 윤혜원)에게 스크랩북 2~4권이 유품임을 확인받았으며 그 목록은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민음사, 1999.) 개정판에서부터 <스크랩북 내용 일람>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물론 학예 스크랩북이 실물 자료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스크랩북의 구성 및 서지 목록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독일 전후로 운동주의 적극적인 독서 목록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 2) 학예 스크랩북 1권에 수록된 작품과 관련하여, 운동주가 읽은 당대 시인들의 영향 관계를 고찰한 선행 논고로는 박성준의 논의가 있다. “운동주는 소년기부터 기성 문인들의 작품과 평론들을 스크랩했다고 전해”(박성준, 「운동주의 독서 체험 고찰(1) -소장 ‘학예 스크랩북’의 의미와 운동주가 읽은 신세대 시인들」, 『국제한인문학』 제32호, 국제한인문화회, 2022, 69면.)지고 있으며, 이는 운동주의 ‘적극적인 독서 행위’를 방증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크랩북은 단순히 자기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시를 썼던 운동주가 나아가고자 했던 시적 전망이나 세계 인식의 틀을 엿볼 수 있는 실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박성준, 위의 글, 65면.

창작해왔던 윤동주는 문단에 발표한 시는 단 2편(동시 제외)<sup>4)</sup>에 지나지 않으며, 연희전문 시절 은사였던 이양하 선생의 만류로 인해 자필 시고였던 『病院』(가제)마저도 상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동주의 문단 활동은 작고 때까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실증 연구 또한 가족이나 주변 회고에 의존한 채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그리고 학예 스크랩북을 제작했을 당시 윤동주가 창작했던 시가 39편<sup>5)</sup>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윤동주의 작품 세계는 그의 독서 행위와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고 추론할 만하다.

특히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윤동주가 당대 조선 문단의 전환기 비평사를 탐독했던 맥락과 그에 따르는 시의 영향 관계에 관한 고찰이다. 물론 윤동주의 학예 스크랩북 1~4권에 해당하는 비평문의 주제론적 범위(연작기고 및 연속회차 제외)는 ①네오-휴머니즘론, 지성옹호론, 행동주의론, 주체론이 12편<sup>6)</sup>, ②고전부흥론 11편<sup>7)</sup>, ③문화부

- 4) 『시고전집』 개정판을 기준으로 ‘스크랩 내용 일람’(윤동주, 왕신영 외 편,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2002)에는 윤동주가 자신이 발표한 시 2편을 스크랩북 1권에 말미에 재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작품은 「아우의 印象畵」(《조선일보》, 1938.10.17.), 「遺言」(《조선일보》, 1939.2.16.) 등이다. 여기서 「遺言」은 ‘尹東柱’가 아니라 ‘尹柱’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된다.
- 5) 피검 당시 소실된 국문 작품을 제외하고, 동시를 포함 작고시까지 61편의 시를 창작한 윤동주가 스크랩북을 제작한 시기에 자기 작품의 3분의 2 정도를 창작했다는 점은 이 학예 스크랩북의 자료적 가치를 방증해준다. 정식 문단 활동이 전무했던 윤동주에게 추체험 활동이었던 독서 행위는 그의 시 세계를 조망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 6) ① 네오-휴머니즘론, 지성옹호론, 행동주의론, 주체론과 관련한 스크랩 논고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윤규섭, 「文學儀式과 生活의 乖離」, 《조선일보》, 1938.5.18~25; 안호상, 「自我擴大와 環境」, 《조선일보》, 1938.7.1; 최재서, 「事實의 世紀와 知識」, 《조선일보》, 1938.7.2; 유진오, 「叡知-行動과 知性」, 《조선일보》, 1938.7.3~5; 신남철, 「知者를 부르는 喇叭」, 《조선일보》, 1938.7.7; 이기영, 「歷史의 흐르는 方向-科學의 合理性의 把握과 實踐」, 《조선일보》, 1938.7.9; 안함광, 「知性的 自枕性」의 問題-그의 眞實한 理解를 위하여」, 《조선일보》, 1938.7.10.~13; 윤규섭, 「知性問題와 휴머니즘」, 《조선일보》, 1938.10.11~20; 최재서, 「抒情詩에 있어서의 知性-現代詩論의 前進를 위하여」, 《조선일보》, 1938.12.24~28; 서인식, 「傳統의 般的性格과 그 現代的意義에 關하여」, 《조선일보》, 1938.10.22~30; 백철, 「時代的偶然의 受理」, 《조선일보》, 1938.12.2~6; 김오성,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데유스的事態」, 《조선일보》, 1939.1.24~2.2.
- 7) ② 고전부흥론과 관련한 스크랩 논고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홍론 5편, ④세계문학론 5편, ⑤좌담회 3편 등으로 전환기 비평사의 거의 전 범위를 항목화하고 있다. 주지하듯 전환기의 담론이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담론 심화 과정에서 논자들의 경향성과 전망에 따라 개별 심화된 맥락이었다는 것을 검토해보면, 운동주가 전환기 담론의 전 범위를 다뤘다는 것은 그가 이 시기 조선 논단에 관한 관심이 깊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희머니즘론에서 고전부흥론까지 파생된 논쟁 과정을 운동주가 스크랩한 논고들을 통해서만 복기해보더라도, 운동주가 읽어낸 전환기가 그에게 어떻게 내재화될 수 있었는지 대략적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주가 적극적으로 독서했던 전환기 담론들인 「지성 문제와 휴머니즘」, 「지성의 자율성」의 문제, 「사실의 세기와 지식인」, 「시대적우연의 수리」, 「시대와 지성의 갈등-프로데듀-스적사태」, 「고전복오의 이론과 실제」 연작 등을 검토해봄과 동시에, 운동주가 이 시기 전후로 창작한 시에서 전환기를 어떻게 내재화했는지 고찰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운동주의 스크랩복에 수록된 유치환 시편과의 영향관계와 키르케고르 철학을 전유한 맥락을 검토<sup>8)</sup>한 바 있듯이, 운동주의 학예 스크랩복은 운동주의 창작 동기와 시적 전략화 과정이 드러난 보고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시편 「아우의 印象畫」, 「사랑의 殿堂」, 「슬픈族屬」, 「慰勞」, 「肝」 등에서 나타난 전유 관계를 살펴보면, 신희머니즘에서 지성 옹호, 고전부흥론에 이르기까지 전환기 정신사가 투사된 가편이었다는 점을 본 연구는 고찰해볼 것이다.

박영희, 「古典復興의 現代的 意義」, 《조선일보》, 1938.6.4; 이희승, 「古典文學에서 어든 感想」, 《조선일보》, 1938.6.5; 박종홍, 「歷史의 轉換과 古典復興」, 《조선일보》, 1938.6.7; 이여성, 「古典研究의 書籍貧困」, 《조선일보》, 1938.6.8; 최재서, 「古典研究의 歷史性」, 《조선일보》, 1938.6.10; 유자후, 「傳來作品 稽考難」, 《조선일보》, 1938.6.11; 박치후, 「古典의 性格인 規範性」, 《조선일보》, 1938.6.14; 송석하, 「新文化輸入과 우리民俗」, 《조선일보》, 1938.6.15; 전몽수, 「鄉歌解疑」, 《조선일보》, 1938.6.6~14; 양주동, 「鄉歌와 國風·古詩- 年代代와 文學的價値에 對하여」, 《조선일보》, 1939.1.1; 호암, 「己卯年을 通해본 政治家」, 《조선일보》, 1939.1.7~11.

8) 박성준, 「운동주의 독서 체험(2) -유치환 시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3호, 한국비평문학회, 2022, 105~133면.

## 2. 지성사의 탐독; 연전 시절 시적 전망의 모색

주지하듯, 조선 문단 내에서 네오-휴머니즘 논쟁의 촉발점은 백철의 「웰컴! 휴먼이즘」<sup>9)</sup>에서부터다. 물론 그보다 앞서 1935년경 서구 보편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 대전과 맞물려, 서구의 합리성과 인간성의 붕괴를 목격한 인텔리들의 자성적 논의가 추동되고 있었고, 이를 조선 문단 내에서도 이헌구, 함대훈, 홍효민, 김문집 등이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일찍이 이헌구는 「行動精神의 探照」에서 “행동과 인본주의(휴머니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되물으면서, “기계적 유심론에서 떠나 인간성의 새로운 계시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과학적 문명, 정신적 사색을 섭취하려 한다.”는 크레미외의 논의를 고찰한다. 중국에 이 논의는 “행동적 정신이란 “나는 인간이다.”라는 일언”<sup>10)</sup>을 발견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여기서 행동 정신은 유럽에서 발발한 새로운 휴머니즘 운동의 한 표현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1935년경에 조선 문단에 소개된 네오-휴머니즘론과 행동주의 문학론은 담론 형성으로 심화된 것이 아니라, 소개의 차원에서 그쳤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 반해, 백철의 논의로부터 발발한 휴머니즘론은 백철 스스로가 그러했듯 “카프 해체 이후 식민지 조선의 인텔리들은 지성적 좌표를 상실했고 이를 대체할 서구의 담론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상황”<sup>11)</sup>에서 촉발된 근대 초극의 논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는 임화의 적극적인 반발이 도화선<sup>12)</sup>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었으

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IV-1』, 한국학술정보, 2004, 181면; 『朝光』 제15호, 1938.

10) 이헌구, 「행동 정신의 탐조」, 『이헌구 선집』, 현대문학, 2011, 113면; 《조선일보》, 1935.4.19.

11) 박성준, 「한혹구 시에 나타난 ‘자유’의 의미 연구-미국 체험을 통한 근대 전환기 담론의 전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9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23, 9면.

12) 이 시기 임화는 「르네상스와 신희머니즘론」(『조선문학』, 1937.4.), 「문예이론으로서의 신희머니즘에 대하여-문예학의 기초 문제에 비취 본」(『풍림』, 1937.4.),

나, 이후 서인석, 김오성, 최재서, 안함광, 윤규섭 등이 합류하여 약 5년간 조선 문단에 주요 논제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게다가 예술파로 분류된 논객이었던 김문집, 김환태 등까지 이 논의에 합류하면서, 이 시기 휴머니즘 논의는 찬반양론에 따라 문화 옹호, 고전부흥, 세계문학론으로까지 확대되는 형국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맥락들을 운동주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학예 스크랩북을 통해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중세적, 봉건적인 것에서의 인간 해방이라면, 현대 휴머니즘은 시민적인 것에서의 인간의 해방이라고 할 것이다. 거기에는 역사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해방의 태도에 있어서도 커드란 차이가 있다. ……(중략)…… 이제 억지로나마 현대 휴머니즘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사회적 전형기에 잇서 범람하는 모든 비합리적 신화와 물질, 생활적 파멸에서 인간성 일반을 사회적, 역사적 입장에서 해방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석을 필요로 할 것은 처음부터 휴머니즘은 역사적 주체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인텔리겐차의 그것으로 시작되고 또한 전개되면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아무리 인간성 일반을 쳐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직접적으로 인텔리겐차에 관련된 ‘지성의 자유’라든가, ‘문화의 옹호’의 과제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윤규섭, 「지성 문제와 휴머니즘- 30년대 인텔리겐차의 행정」 부분<sup>13)</sup>

합리적 객체에 대한 주체적 능동(실천)의 세계를 가지지 않는 지성은 벌써 지성일 것을 저버린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혼돈된 사조의 교류 가운데 있어 지식인이 이렇다 할 지도 정신의 주체화를 얻지 못한 채로 모색의 일

---

「휴머니즘논쟁의 총결산-현대문학과 휴머니티의 문제」(『조광』, 1938.4.) 등을 통해 백철의 문제의식을 전면 부정하며 근래의 유통되는 휴머니즘은 르네상스의 휴머니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임화의 글자는 휴머니즘을 제창한 계급이 유독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전 계급적 확대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맥락(임화, 「르네상스와 신희머니즘론」, 『임화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121면.)이었지만, 이는 유럽발로 시작된 휴머니즘론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였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13) 윤규섭, 「지성 문제와 휴머니즘- 30년대 인텔리겐차의 행정」, 『인식과 비평』, 최명표 편, 신아출판사, 2015, 148면; 《조선일보》, 1938.10.16.

로에서 저미(低迷)하게 될 때 그가 진실로 깊고 정당한 사색의 세계를 사회에 대하여 요구·옹호·주장한다는 것은 이(理)의 자연지사가 아닐까? 진실로 깊고 정당한 사색의 과정 없이 정당한 행위의 세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안함광, 「지성의 자율성」의 문제-그 진실한 이해를 위하여」 부분<sup>14)</sup>

위의 자료는 운동주의 학예 스크랩북 3권과 2권에 수록된 비평문이다. 먼저 윤규섭은 르네상스의 휴머니즘과 현재 유통되는 휴머니즘을 구별하면서, 각각 극복의 대상의 차이를 논한다. 전자의 휴머니즘이 ‘봉건적인 것’의 개조를 통해 중세로부터 인간(성)을 해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후자는 ‘시민적인 것’에서 인간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분류한다. 여기서 ‘시민적인 것’이란 서구 근대의 보편적인 것과 다름이 아니다. 주지하듯 르네상스 이래로, 종교성을 배척하고, 그 대체재로 과학적 진보와 개인주의, 합리적 이성과 같은 시민 사회의 규약들이 휴머니즘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 나갔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 휴머니즘적이었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근대 보편의 ‘시민적인 것’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세계 대전과 독일 파시즘 이후에 서구 보편의 몰락<sup>15)</sup>은 ‘개인’과 ‘합리성’마저도 하나의 극복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 종래의 ‘휴먼’ 자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적, 역사적 입장에서 해방”하려는 모든 행위가 네오-휴머니즘론의 촉발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윤규섭은 ‘새로운 지성’,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전통’이 필요한 시대 징후를 읽어내고 개조해나가는 주체가 인

14) 안함광, 「지성의 자율성」의 문제-그 진실한 이해를 위하여, 『안함광 평론선집 1: 인간과문학』, 이현식·김재용 편, 박이정, 1998, 169~170면; 《조선일보》, 1938.7.13.

15) 최재서는 이 시기 세계 문화옹호 작가대회에서의 발레리의 ‘휴머니즘 선언’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맥락의 설명을 첨언한다. “토의 전체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정신을 선양하였다. 現代를 풍미하는 非合理主義에 대하여 人間の 知性を 빛내게 하고, 政治的 文化的 責任과 努力을 集團으로부터 個人으로 옮기고 國民主義의 神話와 暗示에 맹동하는 民衆을 배척하고 叡智의 축적인 文學 藝術 기타 모든 文化의 傳統을 옹호하려고 하였다.”(최재서, 「知性擁護-五.知성과 휴머니즘」,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164면; 『文學과 知性』, 인문사, 1938.)

텔리에게만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인간성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층에게 부여된 지성의 문제로 요청되는 네오-휴머니즘의 골자는, 중국에는 “‘지성의 자유’라든가, ‘문화의 옹호’의 과제”와 같은 특정 계층인 진보적 인텔리들의 반성적 자각의 형태<sup>16)</sup>를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은 안함광의 논의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좌파 논자였던 안함광은 여기에 지성의 실천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차이가 있다. 실천하지 않는 “지성은 벌써 지성일 것을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sup>17)</sup>은 이미 ‘네오 휴먼-지성 옹호-행동주의’의 맥락을 모두 내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지도 정신의 주체화”<sup>18)</sup>라는 개념을 대입하여, 휴먼의 문제를 지식인층의 문제로 한정하

- 16) 이와 관련하여, 운동주의 스크랩 목록 중 다른 논고들을 참고할만하다. 유진오의 「世紀에 부치는 말- 叡知·行動과 知性(하)」(《조선일보》, 1938.7.5.)에서는 당대 지성 옹호의 난제는 “行動업는 知性は 空虛라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는 역사적 진보 없는 지성이나 행동의 추구는 지식인의 임무가 아니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획의 안호상의 글 「世紀에 부치는 말- 自我擴大와 環境」(《조선일보》, 1938.7.1.)에서는 환경에 지배에 따라 자아와 성심의 문제를 핑계 삼는 태도를 비판하며, 지성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강조한다. “原因과 理由를 『나』(自我)에게 돌려보내는데 反對하여 모든 原因을 오직 環境에 돌려보내는” 행위는 옳지 않으며, 오히려 안호상은 자아를 확대하여 “環境을 批判하는 主人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시사한다. 이러한 논지 모두를 운동주는 지성인의 책임과 행동을 강조한 맥락으로 읽어냈을 것이다.
- 17) 안함광은 「지식옹호의 변」(『비판』, 1938.11.)에서 ‘지식 옹호란 창조적 정신’ 자체를 지칭한다고까지 논변한다. 그러면서 ‘조선문화 전통의 빈약성’과 조선문화(재)창조의 문제를 지식(지성)을 어떻게 동원하여 창조할 수 있는 것인가 시사하는 과제로 문제의식이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안함광, 「지식옹호의 변」, 앞의 책, 177~178면 참조.) 이는 윤규섭이 문화 옹호의 문제나 전통론으로 네오 휴먼을 해석한 맥락과 다르지 않다.
- 18) 운동주가 스크랩하지 않은 같은 글 다른 회차에서 안함광은 지도 정신과 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약술한다. “사실 ‘지성의 문제’는 지도 정신의 상설적 현실의 산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성의 직관적 개성화니 지성의 능동성이니 하는 것도 결코 혹정의 지도적 사상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중략)……지성의 문제는 그 체론적(提論的) 이유를 ‘사상의 문제’에로 양여(讓與)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중략)……지성은 사상을 구체화하고 주체화하고 행동화하는 모멘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의 무제는 앞으로도 방법론적 논쟁의 제목으로 전개되어질 충분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안함광, 앞의 글, 174~176면; 《조선일보》,

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조선 문단 내의 사상적 공백을 새로운 사상으로 협의해 개선해나가기를 요청한다. 즉 지성은 사상을 주체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문학 정신 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확장한다. 그러나 안함광은 현재를 “혼돈된 사조의 교류”를 겪고 난 이후의 상태로 진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고를 읽은 운동주는 어떻게 자기 세계를 변모시켰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주지하듯 운동주는 창작 시기를 시 작품 말미에 부기에 놓았다. 이는 자신보다 송몽규가 먼저 등단했던 것<sup>19)</sup>과 관련이 있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시고집 3권’<sup>20)</sup>을 소장하고 다녔던 것을 고려하면, 운동주는 자신이 쓴 시를 저 스스로 아끼며 성찰해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간된 ‘자필 시고전집’에서는 시편마다 운동주의 메모나 수정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어, 후행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에도 지대한 이바지를 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보건대, 네오 휴먼의 논의에서 파생된 전환기 담론이 본격화되었던 1938년에 운동주(22세)는 「새로운 길」(5.10.), 「비오는 밤」(6.11.), 「사랑의 殿堂」(6.19.), 「異蹟」(6.19.), 「아우의 印象畫」(9.15.), 「코쓰모쓰」(9.20.), 「슬픈族屬」(9.), 「고추밭」(10.26.) 등 시만 8편을 창작했다. 동시도 5편을 창작했으며, 10월에는 산문 「달을쏘다」를 창작하기도 한다. 물론 이 시기는 1936년이나 1937년보다 시 창작에 열정을 더 보여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운동주에게 1938년은 광명 중학을 2월 졸업하고, 4월 9일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여 경성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즉 운동주에게는 1938년은 개인사적 차원에서도 도시 경성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물밀듯이 밀어닥친 해이기도 하고,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와의 불화를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문과에서 문학을 공부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험적 차원에서도 1938년에 창작된 운

1938.7.15~16.

- 19) 송몽규는 1935년 1월 1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콩트 「술가락」으로 입선을 했고, 이보다 앞서 운동주는 1934년 12월 24일에 「삶과 죽음」, 「초한대」, 「내일은 없다」에서부터 제작 월일을 부기하는 습관을 줄곧 유지한다.
- 20) 운동주가 소유하고 있던 자필시고집은 『나의 創作期的 詩 아닌 詩』, 『窓』,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등이다.

동주의 시는 종전의 시편들과 다른 차원의 시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학예 스크랩북 2~3권에 대다수 평론과 논문들이 1938년에 집중된 것 또한 이와 같은 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운동주는 문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환기 담론에 대한 스크랩을 통해 자기 세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혼 전정코 설혼 對答이다.

슬며-시 잡어든 손을 노코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드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니마에 저저,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 「아우의 印象畫」 부분<sup>21)</sup>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 었다.

靑春!

聖스런 촛대에 熱한불이 꺼지지前,

順아 너는 앞으로 내 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窓에 부닥치기前

나는 永遠한 사랑을 안은채

뒤스 門으로 멀리 사려지린다.

이제.

네게는 森林속의 안옥한 湖水가 있고,

---

21) 운동주, 『하늘과바람과별과詩 원본대조 운동주 전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87면; 이후 『전집』 면수'로 표기.

내게 峻險한 山脈이었다.

- 「사랑의 殿堂」 부분<sup>22)</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운동주는 경성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든다. 막 연희전문에 입학한 시기(1938.4.9.) 창작했던 「새로운길」(1938.5.10.)에서는 이와 같은 운동주의 내면 결의가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와 가고 오늘도 같/ 나의길 새로운길”을 제창하며, 자신이 앞으로 창작할 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자기 시가 어떤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지 고민 또한 함께 수행<sup>23)</sup>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용 시편에서는 이 시기 읽었던 전환기 담론에 대한 고민이 투사되었다고 판단할 만하다.

먼저 「아우의 印象畫」에서 시적 화자는 동생과 찬 기운이 가득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아우의 얼굴에서 슬픈 그림(‘印象畫’)을 화자가 읽어낸 이유는 아우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을 형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동생의 말은 겨우 사람이 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시대상을 투영<sup>24)</sup>하고 있다. 즉 휴먼, 인간적인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22) 『전집』, 91면.

23) 가령, 운동주의 스크랩 목록 중, 지성의 역할을 문학적 방법론으로 이해하려 했던 최재서의 논고가 그러하다. 김기림 등이 논제로 삼았던 시의 ‘회화성’과 ‘음악성’의 관계를 최재서는 지성의 문제로 환원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가 지금 詩의 繪畫性을 생각하게된것은 詩가 浪漫主義以來 너무도 音樂化하여 도리어 詩讀者의 世界—意味의世界를 喪失케된데 對하여 그 救濟을 發見하라는 때문이다. 그리고 音樂의 물결속에 沈沒된 詩를 건져내려면 詩가 詩讀者의 意味의世界를 維持하라면 詩의情緒를 結晶시키고 그感情을 限定하고 그 輪廓을 區劃하는 繪畫의智性的 作俑을 기대리지 안할수 없다. 今日 이點을 가장 明確하게 認識하고있는 批評家는 元담루이스이다.”(최재서, 「서정시에 있어서의 지성2-현대시론의 전진을 위하여, 시에 있어서의 음악 회화성 승진」, 《조선일보》, 1938.12.25.) 다시 말해, 최재서는 시에서의 음악성은 시간적 계기를 서술하는 층위로, 회화성은 공간적 병치를 묘사하는 층위로 해석하고, 후자의 경우는 “우리에 의식에 속크를 주어 覺醒시키고” 실재를 직시하는 지성적 작용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운동주가 정지용과 오장환, 김광균 등과 같은 이미지즘을 기반으로 하는 시인들의 시편들을 독서하는 데에도 비평적 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적 화자는 어떤 지성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에 잠기며 서러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슬며-시 잡어든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에서 “싸늘한 달”을 읽어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성은 있으나, 자유가 없는 식민지 시대에 지성의 자유와 문화의 재창조를 논하는 시대적 물음에 화자는 쉽사리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의 대답이 설익은 대답이든, 서러운 대답이든,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에 사람이 되겠다는 대답은 화자 자신조차 찾아내지 못한 정답에 가까운 말이었을 것이다.

「사랑의 殿堂」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라고 말할 때, 이미 순이와 나는 사랑조차 현실에서 논할 수도 없는 사태에 진입해 있다. 다만, 순이에 대한 마음을 화자가 사랑이라고 호명할 수 있는 이유는 미약하게나마 ‘순이’라는 대상을 ‘지적인 정서’로 상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체화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관념을 순이를 통해 확인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즉 이 시에서 화자는 순이와 사랑을 한 적이 없다. 순이를 사랑한다는 관념만을 자신의 지적 충동으로 재차 확인할 뿐이다. 그러니 화자가 “永遠한 사랑을 안은채/ 뒤스 門으로 멀리 사려지”는 결의에 찬 선택을 한 것도, 순이에게로 나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말할 수 없는(“병어리”) 시대에 사랑을 논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은 “네게는 森林속의 안은한 湖水가 있고,/ 내게 峻險한 山脈이 있다.”고 진술할 만큼 낭만적 시원의 공간과 절대적 관념이 투사된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의 시편을 운동주는 훗날 「바람이 불어」(1941.6.2.)에서도 반복한다. 이 시에서 운동주는 “단 한女子를 사랑한 일도 없다./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고 고백한 바 있지만, 이 또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싶었다’, ‘시대를 슬퍼하는 지성이고 싶었다’는 진술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요컨대 이처럼 운동주는 연전에서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24) 박성준, 「운동주 시의 낭만성과 戀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44면.

2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엄국현은 운동주의 순이 시편(「사랑의 殿堂」, 「눈오는地圖」, 「少女」)을 연애시가 아닌 명상시로 판단한다. (엄국현, 「운동주 시의 창작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2010, 215면.)

저조차도 정리할 수 없는 지성인으로서의 정동을 가지고 시대의 공백과 전망을 같이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정동이 추동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윤희동주 저 자신이 식민지 지식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무엇을 전망해야만 자신의 문학이 유의미한 시작 행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했던 시기를 고되게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건너온 시대는 도무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랑을 관념화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그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었다. 그리고 「슬픈族屬」에 이르러서는 민족에 대한 ‘공동체적 사유’로 거듭난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튼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 「슬픈族屬」 전문<sup>26)</sup>

주지하듯 「슬픈族屬」은 “우리 민족 전체를 의인화”<sup>27)</sup>하려는 기획이 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 연전 시절 시집 출간이 좌절된 이유<sup>28)</sup>가 된 시편 중 하나이기도 했던 내력을 가진 가편이다. 이처럼 시대적 정신이 투사된 시편이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시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 보면 ‘흰 것’들로 상징되는 민족의 외향이 모두 수동적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시에 등장하는 여인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것이 아니라 “흰 수건”에 “검은 머리”를 두르고 있는 모습도 그러하고, “거튼발”

26) 『전집』, 39면.

27) 송우혜, 「짧음의 정거장. 서울 연희전문학교」, 『윤희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6, 232면.

28) 윤희동주의 시집 출간을 만류한 이양하 선생에 대한 회고를 정병욱은 다음과 같이 약술한다. “「십자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헌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뿐더러 동주의 신분에 위협이 따른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을 것”(정병욱, 「잊지 못할 윤희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976 여름, 140면.)이다.

이나 “슬픈 몸집”, “가는 허리”도 “흰 고무신”과 “흰 저고리”, “흰 띠”로 은폐되고 가려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당대를 살아가고 있던 늙지 않는 거리 여인의 모습을 단출하게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외향만으로도 식민지 치하에 살아가는 삶의 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거친 발과 야윈 허리로 염색도 하지 않은 흰옷을 입고 노동을 하는 모습은 운동주가 경성과 용정을 왕복하며 실제 눈으로 보았던 조선인의 삶의 군상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삶도 능동적이지 않은데, 운동주 저 자신은 지성이니, 행동이니, 문화 창조니 하는 당대 지성사를 읽어내고 있으니, 이 시기 운동주에게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게다가 ‘슬픈 민족’이 아니라 ‘슬픈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 또한 그들을 낮게 이르는 시어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 족속 안에 포함돼있는 자신마저도 낮게 지칭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 안함광의 논의에서처럼 과연 지성의 역할과 공백으로 남은 ‘지도 정신’이나 ‘사상’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모색하는 시점이 운동주에게 도래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 시기 이후로 신앙 회의기를 겪기도 했고, 이듬해인 1939년과 1940년에는 그 이전과 달리 시풍이 어두워졌음을 물론이고, 거의 절필에 가까운 시작 행보<sup>29)</sup>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 이 시기 창작한 시를 통해 비유해보자면, 운동주는 경성 체류 기간에 자신이 품어온 “戀情, 自惚, 猜忌,”와 같은 정돈되지 않는 마음들을 “작고 금메달처럼 만져”보면서 “내 모든 것을 餘念없이,/ 물결에 써서 보내”(「異蹟」)는 가혹한 성찰의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쓴 산문 「달을쏘다」는 후에 「自畫像」의 초고가 되기도 했던 것<sup>30)</sup>을 고려해보면, 운동주에게 지성적 방향성이 저 자신도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던 테제였음이 분명했다.

29) 1939년에는 9월에 「달같이」, 「薔薇병들어」, 「산물골」, 「少女」, 「自畫像」, 산문시 「트루게네프의 언덕」을 몰아서 창작했고, 1940년에는 「八福」(미상), 「慰勞」(12.3), 「病院」(12.) 등을 12월에 몰아서 창작한다.

30) 류양선, 「尹東柱의 <自畫像> 再論」, 『성심어문논집』 제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180~181면.

### 3. 전환기 전유와 근대 초극의 양상; 「慰勞」와 「肝」의 경우

선술한 바와 같이, 지성적 좌표를 잃은 당대 지성들의 사상의 곤궁은 운동주에게 다른 시적 비전을 함의해야 할 당위성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듯 운동주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느리게 일진보한 시작 과정을 거친 시인이었다. 게다가 ‘시인’이라는 칭호조차도 당시로서 운동주는 문단에 등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쉽사리 부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운동주는 시집 『病院』 출간이 만류되자 다시 학업과 생활로 도피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이 시기 수업 과제로 제출<sup>31)</sup>되었다가 산문으로 발표된 「달을 쏘다」가 그렇다. 「달을 쏘다」말미에서는 ““죽어라고 팔매질”, “통쾌”, “꽃꽂한”, “띠를 찢서”, “탄탄한 갈대” 등 이 산문의 앞부분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역동성(逆動性)을”<sup>32)</sup> 드러내는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암담한 시대 상황과 자신의 좌절된 문학적 여정에 대한 운동주의 절규에 가까운 수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대 논단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오늘은 모도가 비평의 상실된 시대라고 한다. 평론은 그가 가져야할 공통의 원리적 정신을 일코, 비평 정신의 권위는 泥濘에 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비평의 근원을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널리 유기체 전체에서 찾게 될 제, 그것이 점차 신경 계통의 출현에 따라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그것이 인간 생활이 원시시대에 있어서 판단과 기준의 자연발생적인 계단을 거쳐서 오늘의 고도의 비평 계단에 이르게 된 일련의 발전 과정이 얼마나 유구한 것이었으며 얼마나 꾸준한 것이었는가를 죽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31) 정인섭 강의 시간에 학기말 시험(1938년 7월에서 9월로 추정)으로 제출된 「달을 쏘다」는 이후 다듬어져 《조선일보》 학생란(1939.1.23.)에 발표되었으며, 운동주의 학예 스크랩북 4권에는 정인섭의 글 「현대학생기질론-이상에 불타는 젊은 학도들에게(1)」(《조선일보》, 1939.1.5.)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32) 김응교, 「1년 동안 글쓰기, 운동주 산문 「달을 쏘다」, 『사고와 표현』 제12집 1호, 사고와표현학회, 2019, 167면.

- 윤규섭, 「현계단과 문예평론- 비평 정신과 인식론적 과제」 부분<sup>33)</sup>

事實의 秩序를 깨트리고 前塵하며 行動이 知性を 박차고 나서는데 現世紀의 감출수없는 風貌가 나타난다. ……(중략)…… 事實이 自動的으로 秩序를 破壞하고 行動이 故意로 知性を 蔑視하는 世紀에있서 知識人은 어떤 態度를 取하며 어떤 役割을 스스로가져야할까? 적어도 知識人이 現在에있서 무슨 創造的役割을 가진다거나 或은 指導性을 確聞한다고 생각함은 迷信에 가까운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최재서, 「事實의 世紀와 知識人」, 《조선일보》, 1938.7.2

가령, 인용한 학예 스크랩북의 비평문들은 당시 조선 문단의 풍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윤규섭은 현시대를 비평 상실로 진단하며, 비평의 역할이 단순히 “대상을 음미(논구, 분석)”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비평의 상실은 비평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는 지성의 역할이 약화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렇다면 왜 지성의 역할은 축소되었는가. 그에 의하면 비평은 ‘작품’과 ‘인간 생활’, ‘현실’의 문제를 연동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기저를 통찰하고 유기체 전체를 식별하는 ‘판단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이런 인식과 비판 능력이 비평의 추동력을 만들고, “평론의 지표성”<sup>34)</sup>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규섭이 보기에는 지금의 문예비평은 지표성을 어디에 둘지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평의 지표성 자체를 유파마다 세우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과 현실 간의 관계 설정만을 해설하는 수준에 그치는 평문들만 다수 쏟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윤규섭에게 비평의 상실은 지성의 상실이고, 평론의 지표성 상실은 문학적 전망의 상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재서 또한 현시대의 당면 문제를 ‘질서가 파괴된 상

33) 윤규섭, 앞의 책, 166~167면; 《조선일보》, 1939.1.31.

34) 운동주가 실제로 스크랩한 부분은 1회차이다. 그 때문에 평론의 지표성 상실을 다루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으며, 문단의 당대 징후를 진단한 부분만 스크랩되었다.

태'나 “知性を蔑視하는世紀”에서 찾는다. 이런 가운데 최재서는 당면 현실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태도는 무엇이냐는 물음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당대 지식인들이 파괴된 질서를 목도하면서 어떤 전망도 마련하지 못하고 좌표가 상실된 상태만 지속하고 있음을 가시화해낸다. 윤규섭이 ‘평론의 지표성’을 논구하여 지속적으로 지식인의 태도 갱신과 사상적 모색을 추동하려고 했다면, 최재서는 지성의 멸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創造的役割을 가진다거나 或은 指導性を 確聞”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그런 태도는 “迷信에 가깝운일”이라고까지 격하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이 문제는 지성 상실과 비평 상실의 시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골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은 백철과 김오성의 논쟁에서 재반복된다.

今日の時代를 受理하는 努力이 하나의 眞理를 建設하는 문제라면 그것이 하나의 寫實主義와 運命論에 빠져서는 不可하다. 時代의 偶然에 대하여 事實과 偶然以上の 意味를 찾고또는 그偶然과는 反對의 地點에하나의 結論을찾는것이며 여기에 이時代에 對한 文學者의프렉시불한 情神이 있는것이다. ……(중략)…… 政治나 事實에대하여 文學者는 精神的으로 그事實과 政治以上の 무엇을 攝取할 것이있는것이다. 그리고몬져 말한바 偶然 그事實에 대하여 情神이 할일은 그뒤에 『意味』를 부쳐보는것이라는것도 그런뜻에서다.

- 백철, 「時代的偶然的 受理」, 《조선일보》, 1938.12.3.~6

프로메듀-스가 제우스에게 反抗하는것은 決코 宇宙를 支配하는 必然의 힘을 拒逆하는것이 아니고, 歷史와 함께 推移될 運命을 갖고있는 現世의 권위인 大神 제우스에게 反抗하는 것이다. ……(중략)…… 프로메듀-스는 新興하는 民衆의 힘, 또는 精神的 自由를 象徵할것이다. 當時 希臘이 寡頭政治에서 民主政治에 轉 朦昧時代에서 文化時代에로 옮겨온것이 歷史的 必然일지댄 이 必然의 힘을 確信하는 프로메듀-스의 情神이 將次 沒落할 運命을 갖고있는 제우스의 暴威에 屈服할 理가 엽섯을것이다. ……(중략)…… 時代의 안에서 時代以上の 必然의 힘, 즉 歷史的인 힘을 確知하는 聰明, 이것것을 우리는 부로메주-스(即知性)의 立場이라고 불너두기로 하자.

- 김오성,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메테우스의事態」, 《조선일보》, 1939.1.24.~26.

백철이 지칭하는 ‘시대적 우연’이란 최재서가 논한 ‘사실의 세기’와 다른 맥락이 아니다. 백철의 친일 성향을 드러낸 첫 비평문으로도 알려진 인용문은, 금일 조선이 겪고 있는 세계사적 맥락을 단순히 ‘우연’의 문제로 취급한다. 최재서가 ‘사실의 세기’를 서구 몰락과 지성의 역할 상실, 좌표 상실의 수준에서 진단했다면, 백철의 경우는 서구 지성의 몰락도, 서구 제국주의 침략의 세계사도, 파시즘도, 일제의 중일전쟁마저도 우리에게 당도한 우연의 기인한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우연으로 취급된 커다란 사실들을 지식인이 수리(受理)하지 않고 응전한다면, 이 또한 시대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당도한 객관적인 거대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런 사실 수용을 토대로 “時代의 偶然에 대하여 事實과 偶然以上の 意味를 찾고또는 그偶然과는 反對의 地點에하나의 結論을찾는것”이 현시대의 지식층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타협론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偶然 그事實에 대하여 情神이 할일은 그뒤에 『意味』를 부쳐보는것”과 같이, 역할 자체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선 거대한 흐름을 수용하고 뒤를 모색하자는 논의로 읽혀질 수도 있으나, 백철의 골자는 지식인은 어떤 좌표도 갖지 말고 일제에 협조하는 맥락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관해 김오성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경유하여 반박을 시도한다.

백철에게 시대의 우연을 수리하는 것이 지성의 역할이었다면, 우선 김오성은 시대와 지성은 ‘같등’하고 있다고 진단한다.<sup>35)</sup> 즉 지성은 시대에 항거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주면서 문명사에 더 나은 삶

35) 이 시기 김오성은 “백철과 같은 지성인들에 대하여 “불순한 요소를 많이 섭취”한 “금일의 프로메테우스(정신, 지성)”라고 비판(박근석, 「운동주의 시 「간(肝)」에 나타난 ‘시적 주체’의 지평」, 『한국문학논총』 71집, 한국문학회, 2015, 188면.) 하며, 중일전쟁까지 옹호하고 나선 백철을 ‘타락한 프로메테우스’라고까지 지칭하기도 한다.

을 제공해준 영웅으로 형상화된 신화 속 인물이다. 김오성은 인용문에서 이러한 행동을 “프로메듀-스가 제우스에게 反抗하는것은 決코 宇宙를 支配하는 必然의 힘을 拒逆하는것”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거대한 시대사의 흐름을 제우스에 반항한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으로, 단편적 비유를 시도한 것은 논증적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김오성은 프로메테우스가 “當時 希臘이 寡頭政治에서 民主政治에로 朦昧時代에서 文化時代에로 옮겨온것”을 미리 예견하고 선지자(先知者)처럼 다음 시대를 예비하여 항거한 지성의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김오성은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김오성의 논의는 곧 몰락할 제우스 시대를 예견하고 프로메테우스가 항거했듯이, 조선의 지식인층도 언제 어떻게 몰락할지도 모르는 일제에 대해 예비하는 지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항거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백철의 논의에 대입하여 말하자면, 서구 질서의 몰락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재편으로 기능하는 기회로 인지되고 그것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서구 질서가 우연하게도 몰락되었듯이 일제조차도 그렇게 몰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 조선의 지성들은 “歷史의인 힘을 確知하는 聰明”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백철의 ‘수리’와 김오성의 ‘갈등’을 모두 읽어낸 운동주는 어떠한 시적 전망을 함의하려고 했을까. 주지하듯, 운동주는 ‘수리’도 ‘갈등’도 아닌 자기 성찰과 시대를 성찰하는 저만의 방식으로 당대의 지성사를 전유해나갔다.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病院 뒤스뜰 난간과 꽃밭사이 사람발이 잘 다져않는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屋外療養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어서 치여다 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마리 꽃밭에날아들다 그물에 걸리었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한다. 거미가 쓴살같이가더니 끝없는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어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쉬었다.

나(歲)보담 무수한 고생끝에 때를잃고 病을 얻은 이사나이를 慰勞할말이—

거미줄을 헝크러 버리는 것밖에 慰勞의 말이 없었다.

- 「慰勞」 전문<sup>36)</sup>

바닷가 해빛 바른 바위우에  
습한 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쓰山中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리리를 빙빙 돌며 肝을 직히자.

내가 오래 기른 여원 독수리아!  
와서 뜨더 떡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龍宮의 誘惑에 얹떠러진다.

푸로메디어쓰 불상한 푸로메디어쓰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沈澱하는 푸로메드어쓰.

- 「肝」 전문<sup>37)</sup>

인용 시 「慰勞」에서 거미에 걸린 나비의 모습은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모습이자 현실에 응전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상징된다. “노란 날개를 파득겨려도 파득겨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한다”는 나비의 고통은 병을 얻어 요양하고 있는 젊은 사나이의 모습과 교차되면서, 나비의 고통과 사나이의 고통, 시적 화자의 처지가 일대일로 대

---

36) 『전집』, 71면.

37) 『전집』, 67면.

응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구조에서 이 시가 마무리된다면, 윤희동의 시선은 수동적인 주체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이 시에서 주목할 지점은 시 말미에 “거미줄을 헝크러 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태 바깥에 있는 화자의 행동에 있다. 조선의 현실을 나비의 입장이나 감정 이입된 사나이의 처지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태 바깥에서 사유하는 화자의 시선과 태도(행동)가 당대 지성인으로서 실천할 책무에 대한 고민으로 독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거미의 “흉한 심보”를 읽어내고, 시대의 소명을 다해야 할 지성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나이의 병을 낮게 하는 일도 아니고, 나비를 치료하는 일도 아니다. 단지 속박 당한 나비를 당장에는 구원해주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만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적 화자는 ‘치유’나 ‘개선’이 아니라 ‘위로’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인용 시 「慰勞」(1940.12.3.)는 자필 시고집의 표제이기도 했던 「病院」(1940.12.)하고도 연계되는 시편이기도 하다. 「病院」에서 ‘병든 사나이’의 모습은 병실에서 일광욕하는 “젊은 女子”와 ‘모르는 아픔을 참고 있던 나’의 모습으로 분화되어, 「慰勞」에서 보다 수동적인 주체성으로 하강된다. 게다가 ‘젊은 나’와 진단을 내리는 ‘늙은 의사’의 관계성을 통해 폭력(억압)을 내재 당한 세대론적 고충으로 격상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병이 분명 있으나 병이 없다고 진단 내려진 당대 지식인층의 고통하는 모습을 「病院」에서는 그대로 묘사해내고 있다. 한편 「慰勞」에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저항력을 잃지 않으려는 당대 지성의 행동주의적 면모가 드러난 시편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속박당한 나비’의 모습은 다시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인용 시 「肝」에서 “불상한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은 「慰勞」의 나비의 형상과 다르지 않다. 「肝」(1941.11.29.)은 자선시집을 모두 완성하고, 창씨개명을 앞둔 시점에서 창작한 시로, 당대 지성사를 스크랩했던 시기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시편이다. 이 시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귀로 설화가 함께 인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이양하 교수의 수업 중 제재가 되었던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와 관련이 깊다.<sup>38)</sup> 당시 연전에서는 셸리와 바 이런 같은 낭만주의 계열 시인들이 교육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고, “개성

과 자아의 추구,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해방”<sup>39)</sup>이라는 관점에서 당대 식민지 지식인들을 매료하기에 충분한 콘텐츠였다. 가령 셸리가 재창조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형벌이 중단되고 프로메테우스가 수동적으로 풀려나는 결말을 고쳐, 신과 인간 간의 화해와 용서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의 능동적 해방에 초점이 맞춰”<sup>40)</sup>기 때문에, 당시 지성들에게 능동적 자아를 추동시키는 매개 서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운데, 운동주는 셸리식의 프로메테우스를 수용해서 「肝」을 창작한다. 물론 이 시는 김오성의 논고를 동조한 맥락으로 읽히기도 한다.

가령,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은 운동주 자신의 모습인 동시에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층의 무능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무능과 고통 상태의 지속은 능동이 될 수 없는 현실을 횡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끝끝내 제우스의 불을 훔쳐낸 윤리적 행동에 대한 형벌 때문이다. 즉 지성의 책무를 다 해야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프로메테우스의 속박된 상태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적 화자는 제 몸의 속박을 모두 감당하더라도 (독수리로부터) ‘간’만은 지키겠다는 토끼의 의지를 이입시킨다. 다시 말해, 현실에 대한 응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멸시된 삶의 현장에서도 끝끝내 살아내며 수동에서 능동체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피가 많은 토끼를 경유한 것과 대결하더라도 살아서 대결하겠다는 소극적 행동주의가 일종의 현실에서 타협으로 읽힐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와서 뜨더 먹여라. 시름 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와 같은 구절을 읽어보면, 비겁하게 식민지 지식인으로 살겠다는 맥락으

38) “연희전문 의 이양하 교수가 셸리를 좋아하였다는 점, 경성제국대학의 사토기요시 역시 낭만주의 시를 자주가르쳤으며, 그의 제자였던 최재수와 임학수 모두 낭만주의에 관한 글을 썼다는 것을 미뤄 보아, 낭만주의 시가 식민지 조선의 제도적 영문학 연구 중 중요 부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신경숙, 「운동주 「肝」과 프로메테우스」, 『비교문학』 제67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15, 124면.)

39) 박호영, 「일제강점기 혁명적 낭만주의 이입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학회, 2009, 21면.

40) 박성준, 「운동주 시의 낭만성과 戀歌」, 앞의 글, 49면.

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타협이나 절충이 아니라, 김오성이 논의했듯 ‘제우스적 현실’을 간파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근대 초극’의 의지로 판단할 만하다.

現代文學이라는 것은 官能的 享樂的인 極히 表面的인데서 滿足하려한다……(중략)……善惡의 分岐線上에서 叡智의 穿鑿이 古典文學의 特質이라면, 現代文學에는 이것이 缺如되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古典文學의 價値를 再認識하려는것은 生活의 表面이 아니고, 그 底流에 잇고, 그 物質에만잇는것이 아니며, 深奧한 情神에잇으며 그 狹窄한데 잇는것이아니라, 그 光胤한 思索의 世界에 잇는것이다.

- 박영희, 「古典復興의 現代的 意義」, 《조선일보》, 1938.6.4.

옛것이면서도 가장 새로울 수 있고 먼곳이면서도 가장가까울수있다는 것이 古典이 가진바 特性이 아닐수업는것이오. 이가티하야 歷史에 잇어서 劃期的인 最高峰으로부터 最高峰으로 飛躍의 斷切을 넘어 새로운 연결을 짓게되는것이 古典復興의 理想으로 나타나는 歷史的事實일 것이다.

- 박종홍, 「歷史의 轉換과 古典復興」, 《조선일보》, 1938.6.7.

現代作家가 늘 古典을 意識하고 써야한다는것과 古典研究家가 늘 現代文學을 念頭에두고 잇서야한다는것은 다가리 傳統이 우리에게 全體의 秩序를 要求하기 때문이다.

- 최재서, 「古典研究의 歷史性」, 《조선일보》, 1938.6.10.

인용한 부분은 《조선일보》에서 연작 기획으로 마련했던 「古典復興의 理論과 實際」에 수록된 원고 일부분이다. 윤동주는 이 기획을 상당량 스크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대의 지성들은 조선의 고전을 발굴하고 재호출하는 과정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근대를 초극하려 애썼다. 가령 박영희는 고전의 가치를 현대문학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生活의 表面이 아니고, 그 底流에” 있는 “深奧한 情神”을 찾아야 한다

고 주창하기도 하고, 박종홍은 “歷史에 있어서 劃期的인 最高峰으로부터 最高峰으로 飛躍的斷切을 넘어 새로운 연결을 짓게되는것”이 고전의 가치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딛고 있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개진해나갈 가치로 고전의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니 최재서에 의하면, “現代作家가 늘 古典을 意識하고 써야”하며, 고전연구가 또한 “늘 現代文學을 念頭에두고 잇”으면서 “全體의秩序”를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보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주는 귀토설화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동시에 차용하여, 새로운 시작 방향을 완성해낸 것이 「肝」의 창작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고전에서의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과 프로메테우스의 미래 전망의 의지가 적절히 조우되면서, 운동주의 내면세계와 시대 정신을 모두 형상화해낸 가편이 「肝」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에 더불어, 운동주 저 자신은 꽤 많은 토끼로 전략하지도, 우직한 거북이가 되지도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프로메테우스의 지성(행동)으로 거듭나겠다는 지성의 윤리관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 「肝」은 운동주의 근대 초극 양상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운동주는 1936년 10월 1일부터 1940년 12월 26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학예면을 중심으로 ‘스크랩북’을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독서목록을 항목화했다. 운동주가 당대 조선 문단의 전환기 비평사를 탐독했던 맥락과 그에 따르는 시의 영향 관계를 고찰해보면, 당대 청년 혹은 학생이었던 운동주는 단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운동주는 윤규섭, 안함광, 최재서, 백철, 김오성, 박영희 등의 전환기 담론을 읽고 자신의 시에 사상적 자양으로 삼았다. 특히 「知性 問

題와 휴머니즘」, 「‘知性的 自律性’의 問題」, 「事實의 世紀와 知識人」, 「時代的 偶然的 受理」,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데뒤-스의 事態」, 「古典復興의 理論과 實際」 연작 등을 검토해보면, 운동주가 이 시기 전후로 창작한 시에서 전환기를 어떻게 내재화했는지 해명할 수 있다.

특히 「아우의 印象畵」, 「사랑의 殿堂」에서 시대에 대한 고민을 투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으며, 「슬픈族屬」에서는 개인의 성찰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성찰로, 시적 관심이 전이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慰勞」에서는 화자의 위치 설정을 통해, 당대 지성으로써 사유하는 자리를 가시화해내고 있었으며, 「肝」에서는 귀토설화와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차용을 통해, 새로운 시 형식과 시대 전망을 내포하려고 한 고민까지 엿보였다.

이처럼 운동주의 적극적인 독서 활동인 학예 스크랩북의 논고들을 통해, 운동주가 전환기 담론을 자기화해갔던 맥락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는 운동주가 자신의 시에서 전망하려고 했던 ‘근대 초극’의 양상이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Contemplation on Reading Experience of Yoon Dong-ju (3)

-Focusing on the exclusive use of discourse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Park, Seungju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rom October 1, 1936 to December 26, 1940, Yoon Dong-ju produced his own "scrapbook" focusing on "ChosunIlbo," "Dong-Allbo," and "MaeilShinbo" academic and artistic aspects, and itemized his reading catalog. This academic scrapbook itemizes almost the entire history of transitional criticism. What this study focuses on is the context in which Yoon Dong-ju explored the history of criticis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Joseon literary world at the ti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the poems.

Yoon Dong-ju used his poetry as an ideological nourishment after reading the discourse on the transition of modern times of Yoon Kyu-seop, Ahn Ham-kwan, Choi Jae-seo, Baek Cheol, Kim Oh-sung, and Park Young-hee. In particular, Yoon Dong-ju's poems can explain how he internalized the discourse on the transition of modern times with his poems written around this time. It takes into account "Intelligence and Humanism", "Issue of Intellectual Autonomy" "The Strength of Facts and Intellectuals", "Embrace the Age of Chance", "Conflict Between the Times and the Intellect Prometheus situation", "Theory and Substance of Classic Literature series".

In addition, the exclusive relationship between Yoon Dong-ju's poems such as "Au's Impression Painting," "Hall of Love," "Sad Family," "Condolence" and "Liver" can examine the context of Yoon's transitional spiritual history. We can also see Yoon Dong-ju overcome the modern era that he wanted to see with his poems.

**Key words** : Yoon Dong-ju, Scrapbook, Collection of Books, Reading Experience, Discourse on the Transition of Modern Times, Neo-humanism, Defense of Intelligence.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6.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원본대조 윤동주 전집』, 정현중 외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사진관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왕신영 외 편, 민음사, 2002.

### ■ 단행본

안함광, 「지성의 자율성'의 문제-그 진실한 이해를 위하여」, 『안함광 평론선집1: 인간과문학』, 이현식·김재용 편, 박이정, 1998, 169~170면.

윤규섭, 「지성 문제와 휴머니즘- 30년대 인텔리겐차의 행정」, 『인식과 비평』, 최명표 편, 신아출판사, 2015, 148면.

\_\_\_\_\_, 「현계단과 문예평론- 비평 정신과 인식론적 과제」, 『인식과 비평』, 최명표 편, 신아출판사, 2015, 166~167면.

이헌구, 「행동 정신의 탐조」, 『이헌구 선집』, 현대문학, 2011, 113면.

임 화, 「르네상스와 신희머니즘론」, 『임화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121면.

최재서, 「知性擁護-五.知성과 휴머니즘」,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164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오성, 「時代와 知性の 葛藤-프로데두—스的事態」, 《조선일보》, 1939.1.24.~26.

김응교, 「1년 동안 글쓰기, 윤동주 산문 「달을 쏘다」」, 『사고와 표현』 제12집 1호, 사고와표현학회, 2019.

류양선, 「尹東柱의 <自畫像> 再論」, 『성심어문논집』 제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박군석, 「윤동주의 시 「간(肝)에 나타난 '시적 주체'의 지평」, 『한국문학논총』 71집, 한국문학회, 2015.

박성준, 「윤동주 시의 낭만성과 戀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_\_\_\_\_, 「윤동주의 독서 체험 고찰(1) -소장 '학예 스크랩북'의 의미와 윤동주가 읽은 신세대 시인들」, 『국제한인문학』 제32호, 국제한인문학회, 2022.

- \_\_\_\_\_, 「운동주의 독서 체험(2) -유치환 시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 83호, 한국비평문학회, 2022.
- \_\_\_\_\_, 「한옥구 시에 나타난 ‘자유’의 의미 연구-미국 체험을 통한 근대 전환기 담론의 전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9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23, 박영희, 「古典復興의 現代的 意義」, 《조선일보》, 1938.6.4.
- 박종홍, 「歷史의 轉換과 古典復興」, 《조선일보》, 1938.6.7.
- 박호영, 「일제강점기 혁명적 낭만주의 이입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학회, 2009.
- 백 철, 「時代的偶然的 受理」, 《조선일보》, 1938.12.3.~6.
- 신경숙, 「운동주 「肝」과 프로메테우스」, 『비교문학』 제67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15.
- 안함광, 「지식옹호의 변」, 『비판』, 1938.11.
- 엄국현, 「운동주 시의 창작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2010.
- 유진오, 「世紀에 붓치는 말- 叡知·行動과 知性(하)」, 《조선일보》, 1938.7.5.
- 정병욱, 「잊지 못할 운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976 여름호.
- 최재서, 「古典研究의 歷史性」, 《조선일보》, 1938.6.10.
- \_\_\_\_\_, 「事實의 世紀와 知識人」, 《조선일보》, 1938.7.2.
- \_\_\_\_\_, 「서정시에 있어서의 지성2- 현대시론의 전진을 위하여, 시에 있어서의 음악 회화성 승전」, 《조선일보》, 1938.12.25.